

푸드테크산업법 가동 본격화 R&D 확대·기업 사업화 지원

농식품부, 푸드테크 육성 로드맵
해외 수요 분야 중심 투자 확대
기술 개발·창업까지 단계 지원
전국 거점 혁신클러스터 조성

정부가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발맞춰 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중장기적으로 푸드테크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푸드테크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1년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국내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 수출 성장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 시장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과정을 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의 구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푸드테크 기업 엡톡하에 협동로봇 102대 계약 했다.

/뉴시스

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각 클러스터에서는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10대 핵심기술은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 ▲간편식 제조 ▲식품프린팅 ▲스마트 제조 ▲스마트 유통 ▲식품업사이클링(새 활용) ▲개인맞춤형식품 제조 ▲친환경포장 ▲식품로봇 등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5개 분야의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했다. 우선 3개 분야에서는 내년 완공이 목표다. 식물기반식품(전북 익산)과 식품로봇(경북 포항), 식품업사이클링(전남 나주)이다. 2개 분야는 후년 완공 예정이다. 개인맞춤형식품(경기 과천, 강원 춘천)과 세포배양식품(경북 의성)이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향후 2년 내 총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한다.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따라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와 '규제 개선 신청제'를 도입한다. 신고제는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중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산업 현장에서 푸드테크와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농식품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내용을 유관부처·기관에 통보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유미선 농식품부 푸드테크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가 K-푸드 등 식품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기후부, 국가댐 스마트 안전관리 구축

국가댐 37곳, 드론·AI 활용 안전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37개 국가댐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무인기(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다. 극한 호우나 지진 발생 시 댐의 안전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국 37개 국가 댐에서는 ▲댐 시설물 변형 실시간 모니터링 ▲무인기를 활용한 안전점검 ▲원격 댐 시설 등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졌다.

댐체 사면부에 위치정보시스템(GPS)·경사계·열화상카메라·전기비저항 측정기 등의 첨단장비를 설치해, 댐체의 내외부 누수나 미세한 변형을 실시간

으로 탐지하게 된다. 또 실시간 탐지를 통해 호우·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시설물 이상을 24시간 점검할 수 있다.

항공 및 수중 무인기도 동원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댐체 고지, 수중의 수로터널, 여수로 등의 시설물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에서 댐체의 손상부분을 자동으로 검출한다.

기후부는 또 3차원 기반 건물정보통합모형(BIM) 및 디지털트윈 기반의 통합관리 플랫폼도 구축했다. 이는 댐 사면부 계측기와 무인기 등을 통해 얻은 대량의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이승환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도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댐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연탄·우리쌀로 따뜻한 겨울 선물

연탄 4만여 장·우리쌀 2톤 나눔

농협중앙회가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 60가구를 시작으로 '사랑의 연탄·우리쌀 나눔' 활동에 나섰다.

21일 농협에 따르면 이는 전국 농촌지역의 에너지 취약가구 140여 가구 등 약 200가구가 대상이다. 연탄 4만여 장과 우리쌀 2톤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이다.

이날 나눔 활동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배우 정애리 씨(연탄은행 홍보대사)를 비롯해 이성현 서대문구청장, 범농협 임직원 봉사단,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에 참석한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농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농협은 이번 나눔을 계기로 도시·농촌 취약계층 대상의 에너지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협의 사회공헌활동은 이미 공인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까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왼쪽 2번째)과 배우 정애리 씨(왼쪽 3번째)가 19일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에서 에너지 취약가구에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농협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주관 '사회공헌대상'을 5년 연속으로 수상했고,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6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강호동 회장은 "농협의 사회공헌은 범농협 임직원이 함께 실천하는 상생 나눔"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자사고 지원 감소, 외교·국제고는 상승세

종로학원, 자사고 지원 전년비 10% ↓
외교·국제고 경쟁률 5년 새 '최고'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원서접수 결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선호도는 뚜렷하게 하락한 반면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근 5년 새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앞두고 내신 부담과 진학 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이 고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종로학원 집계에 따르면 전국 32개 자사고 지원자는 전년 대비 1442명, 10.1% 감소했다. 전국단위 자사고 평균 경쟁률은 1.63대 1로 1.82대 1이던 전년보다 낮아졌으며, 지역단위 자사고는 1.09대 1로 전년 1.21대 1에서 하락했다.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서는 하나가 2.6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외대부고 2.31대 1 ▲현대청운고 1.79대 1 순이었으나, 이들 학교 역시 전년도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지역단위 자사고의 경우 미달 학교가 확대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서울권 14개 지역 자사고 평균 경쟁률은 1.06대

1로 전년(1.17대 1)보다 낮아졌고, 지원자 수는 604명, 9.4% 감소했다. ▲이화여고 1.45대 1(전년 1.74대 1) ▲신일고 1.34대 1(1.11대 1) ▲배재고 1.30대 1(1.41대 1) 순으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인권 자사고 역시 하락 흐름을 피하지 못했고, 지방권 6개 지역 자사고도 평균 경쟁률이 1.16대 1로 전년 1.28대 1보다 낮아졌다.

반면 외교고와 국제고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36개 외교·국제고 지원자는 전년 대비 436명, 4.4% 증가했다.

경쟁률은 외교 평균 1.47대 1로 전년 1.39대 1보다 상승했고, 국제고는 1.87대 1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외교·국제고 전국 평균 경쟁률은 2022학년도 1.06대 1에서 ▲2023학년도 1.24대 1 ▲2024학년도 1.41대 1 ▲2025학년도 1.47대 1 ▲2026학년도 1.54대 1로 5년 연속 상승하며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권 외교고는 평균 경쟁률 1.60대 1로 전년 1.49대 1보다 높아졌다. ▲명덕외고 1.79대 1(전년 1.94대 1) ▲대일외고 1.68대 1(1.56대 1) ▲대원외고 1.62대 1(1.47대 1) ▲이화외고 1.60대 1

(1.19대 1) 순이었다.

경인권에서는 ▲수원외고 1.89대 1 ▲성남외고 1.74대 1 ▲동두천외고 1.51대 1 순으로 나타났고, 10개 외교 평균 경쟁률은 1.41대 1로 전년도보다 높아졌다. 지방권 외교 역시 ▲부산외고 1.91대 1 ▲충남외고 1.59대 1 ▲해외고 1.58대 1 등으로 평균 경쟁률이 1.44대 1을 기록했다.

국제고는 서울국제고 2.12대 1을 비롯해 ▲고양국제고 2.22대 1 ▲동탄국제고 2.01대 1 ▲세종국제고 1.69대 1 등으로 지역별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쟁률을 유지했다.

종로학원은 자사고 지원 감소의 가장 큰 배경으로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내신 5등급제에 따른 부담을 꼽았다. 상위 10% 이내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자사고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원을 꺼리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에반해 외교고와 국제고는 2028학년도부터 문이과 완전통합이 적용되면서 기존 문과 중심 진학 구조를 넘어 의대와 이공계 대학 진학까지 문호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다.

/이현진 기자 lhj@

가스공사, '혁신왕중왕전' 산업장관상 수상

산업부 산하기관 중 유일 '2관왕'

가스공사가 '제8회 산업통상자원부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에서 '민원서비스 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등 2개 부문 장관상을 가져갔다.

21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는 매년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다. 올해는 정부혁신 왕중왕전 서면심사를 통과한 82개 기관 중 최종 9건을 표창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행사에서 산업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2개 부문에서 동시에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민원서비스 혁신에서는 취약계층의 요금경감을 공사가 직접 신청해주는 대신신청 제도가 심사위원단의 주목을 받았다. 일하는 방식 혁신에서는 국내 최초 고압배관 자동용접 공법 도입을 통한 기술 고도화 사례가 인정받았다.

가스공사는 전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공공인프라 건설협업'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혁신이 공사의 조직문화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혁신 에너지를 지속 확산해 앞으로도 국민 체감형 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